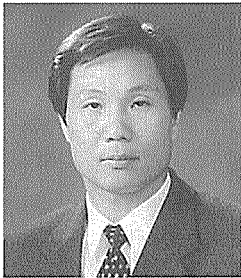


(주)호서텔레콤



- 대표이사 : 김 낙 희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2-8 호서빌딩
- 전 화 : 02-3452-9191
- 팩 스 : 02-3453-8338
- 설립일자 : 1991. 2. 1
- 주생산품목 : Analog/Digital Headend, iTAP-OFF, 각종 Network 기자재
- 자 본 금 : 13억

-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경영철학은 무엇입니까?

‘꿈은 크게 갖되 허황된 욕심은 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 왔습니다. 조그마한 성공이나 발전들이 하나 둘 쌓일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주요한 덕목중의 하나는 성실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성실한 자세로 앞장설 때만이 모든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나의 피와 땀으로 이루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품질 만족, 완벽한 기획설계, 최상의 제품생산을 위한 철저한 공정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성을 다한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켜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걸어온 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한 작은 전자회사에서 기능직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군복무중에도 전자분야에 대한 관심을 조금도 놓지 않았고 제대를 하자마자 단돈 만원으로 전자사업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2평도 채 못되는 지하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과 사업에 몰두했던 그 시절이 오늘의 호서텔레콤이 있게 하였고 당시의 힘들었던 일들은 제가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늘 새로운 힘을 갖게 합니다.

우리 회사는 1991년 2월에 호서전자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94년에 (주)호서통신으로 상호를 바꾼 이후 각종 규격승인 획득과 ISO9001 인증 획득 등으로 회사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0여년간의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2000년 6월 용산에서 강남 역삼동으로 사옥을 마련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10월에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보통신전문사업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상호를 (주)호서텔레콤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의한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만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 귀사의 사업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오랫동안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서 intelligent TAP-OFF & NMS를 내놓게 되었으며 개발에 성공한 intelligent TAP-OFF & NMS의 국내외 판매를 위한 마케팅 및 수출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ntelligent TAP-OFF는 HFC(Hybrid Fiber Coax.)망 및 CATV망의 각 포트별, 단위 지역별, 그룹별 원격제어(ON/OFF/RESET, ALL PORT ON/OFF 등)기능을 수행하고 원격지 TAP-OFF의 단선, 합선, 단락, 도선, 노이즈 등에 대한 가입자선 상태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능형 감시제어 분기기는 기존의 수동소자와는 상이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가입자 케이블의 유지 및 관리와 인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특허를 이미 받았고 지금은 세계특허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품질, 기능 면에서 세계적으로도 일등 제품이라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도입의 초기라 매출액이 적지만 국내외 시장진출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디지털 솔루션(Digital Solution)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국내기간정보망운영관련 기관이나 업체들과 이 제품의 적용에 대해 계속 상담중이며 일부 사업자network에서 BMT(제품성

능시험)중인데 성능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중국 등지의 우수한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연구개발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1세기 디지털방송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회사의 전문 분야인 CATV Digital화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Digital Headend 및 Set-Top Box 연구·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2003년 6월경이면 개발된 제품이 완성되어 각종 전시회 및 시연회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맞아 우리 회사는 Headend solution 구축의 연구 및 개발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개발되고 있는 생체인식 신용카드의 특허등록 출원중이며 이 제품이 개발 완료되면 카드의 분실·강도·타인의 사용 등에서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시장성은 무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귀사의 장단기투자계획을 들려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왔던 기존의 아날로그산업은 급속히 디지털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우리 회사는 iTAP-OFF에 7~8억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7월까지 총 10~15억원을 들여서 디지털CATV solution 개발을 완료할 예정

이며 2003년 말까지 연구개발에 30여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방송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할 계획입니다.

- 귀사의 당면과제는?

중소기업이라면 어느 회사나 겪는 문제이지만 회사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의 확보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수 인력 유치 계획을 세우고 유치에 힘쓰고 있으나 목표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품질관리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플로우를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품질 교육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부나 본회에 바라는 사항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확보는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지원자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홍보도 미흡하여 내용이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 등 각종 학교의 졸업생들이 직장에서 곧 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위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